남상호 소방방재청장 인터뷰

"새로운 재난환경에 부응하는 정책과 함께
무엇보다도 소외된 취약계층 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Q.1 청장님은 박근혜정부의 초대 소방방재청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재정책의 수장으로서 국가방재에 임하는 새로운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 2004년 소방방재청 출범준비단 총괄팀장으로서 개청을 주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친정에 돌아온 기분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그 책임 또한 막중하고 박근혜정부의 「국민안전, 행복한 국민」을 위해 최선의 봉사를 할 것입니다.

-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봉사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의 발로이며 앞으로 우리가 고생하는 만큼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 기틀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 소방방재 조직은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존경받는 조직으로 성장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새로운 재난환경에 부응하는 정책과 함께 무엇보다도 소외된 취약계층 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Q.1 **박근혜정부의 출범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안전의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이에 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방재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5대 주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을 국가방재에 반영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신지요?**

● 최근 우리의 재난관리 환경은 기후변화 · 대도시화 등으로 재난발생시기와 규모를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국정과제로 천명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조직인 소방방재청장의 임무를 맡게 되어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 우선 새 정부의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중 우리 청 소관사항을 엄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안전·인명안전"을 최우선 역점 주요정책으로 삼을 것입니다.

● 첫째, 재난유형에 맞는 재난예방시스템이 100% 작동하는 **'맞춤형 예방 대비'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 둘째, 재난 발생시 초동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준비된 초동대응을 위한 **SOP(표준운영절차)를 완결·숙달** 되도록 할 것입니다.

● 셋째, **안전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9구조구급 U-안심서비스, 생활안전, 생활민방위, 풍수해보험제도 등 안전복지서비스를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넷째, **선진형 안전기술 확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국지성호우, 지진, 화산 등 자연재난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사회적 변화로 인한 대테러, 화생방사고 등 소방방재환경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방재기술의 연구개발과, 안전기술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 다섯째, **조직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선관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세세히 살펴서 더 나은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소방인력과 노후장비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를 설득하는 등 소방재원 확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Q.3 우리는 최근 2-3년간 수도권 집중폭우로 인한 도심침수와 우면산 산사태 등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를 직접 목격한 시민들은 곧 다가올 여름철에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재청이 준비하고 있는 여름철 수방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 지난 2011년 과거기록을 갱신하는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내려 서초구 우면산 등 전국적으로 산사태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저지대 주택 · 도로 침수피해 발생으로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민 생활 불편을 초래한 바 있었습니다.

※ 서울지역에 '11.7.26~28, 3일 연속강우량 588㎜발생, 1907년 이래 최고

이에 따라 금년 여름철 극한 기상발생에 대비 인명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둔 풍수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인명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일제조사를 실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2,768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 선정된 대상 지구별 관리전담자를 복수(공무원, 주민대표) 지정(4,388명)*

* 관리전담자 : 공무원 1,961명, 방재단 · 이(통)장 등 지역주민 대표 2,427명

- 평상시 정기점검 및 기상특보 또는 강우종료 후 수시로 점검을 실시 해당 지역별 위험도를 사전에 파악 조치하고
- 기상악화 등 위험징후 발생시 출입통제 · 주민 및 피서객 사전대피 등 현장 대응을 전개토록 하는 등 집중관리 할 것입니다.

● 또한, 침수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 저지대 침수우려 반 지하주택 52,216세대중 41,248세대에 대해 침수방지시설(방수판, 자동펌프 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 추가로 8,450세대에 대해 침수방지시설(방수판 5,704개, 자동펌프 2,733대)을 6월 완료 목표로 설치 중에 있고
- 침수방지시설 미설치 3,148세대에는 모래주머니(413천개) · 양수기(7,885대) 확보 5월중 현장에 비치 예정
- 침수우려 지하철 역사 128개소 출입구(환기구 포함)에 우수유입 방지시설(방수판 2,704개 및 계단턱 높임 720개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 긴급복구요원 지정 및 장비(자동펌프 1,907개) 사전배치 등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하였음.
- 집중호우시 사전통제가 필요한 침수예상 취약도로 339개소를 지정하는 한편 도로관리청과 경찰

관서와 협의 사전 통제기준(시기 · 방법 · 담당자 등) 마련하는 등 긴급통제 체계 구축 · 운영할 것입니다.

Q.4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이에 대비하는 소방방재청의 역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방재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 R&D 투자는 제자리걸음으로 국민안전이라는 국정목표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가방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에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요?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초고층 건축물 등으로 재난관리 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재난환경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저하되고, 재난관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새로운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고,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R&D를 통한 재난관리 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박근혜정부도 국민의 복지 · 생명 · 건강 · 재산 · 환경 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 금년도 우리 청 소방방재 R&D이 275억으로 전년 대비 4.6%가 증가함, 2017년까지 소방방재 R&D 예산을 국가 R&D 예산 대비 0.5%인 860억 수준으로 확대는 것을 목표로, 안전국가 실현을 위한 선제적·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 2013년 소방방재청 R&D 예산(275억) 대비 매년 33% 증대
    *'13년 275억, '14년 366억, '15년 486억, '16년 647억, '17년 860억

Q.5 청장님께서 바라는 한국방재협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 방재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방재 기술과 산업발전의 구심체가 되는 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재협회는 특수법인으로서 방재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각종 방재산업의 정책과 기술개발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등 방재분야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협회의 노력과 방재분야 종사자들의 결속력이 바탕이 되어 방재분야 교육, 연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주고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Q.6 청장님께서 자연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당부의 말씀은?

- 최근 기상이변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나 자연재해 예방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를 줄 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도 안타깝게 잃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